

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9.17 18:05 | 11면

고령 농업인 안정적 노후 자금 마련...추석맞이 전통시장서 홍보활동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1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김해 서상동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박찬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지난 1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김해 서상동 전통시장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실시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고령 농업인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65세 이하 84세 이하 고령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진흥지역 농지 또는 진흥지역 밖의 경지 정리된 농지이다.

매도 방식으로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최장 10년간 매월 최대 200만원(4ha기준) 또는 보조금 총액을 한번에 수령할 경우 1억6800만원(4ha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농지은행에 임대하고 은퇴기간 종료 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월 최대 160만원(4ha기준)을 농지연금과 동시수령도 가능하다.

손흥모 김해양산부산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통해 평생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세대교체와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또는 김해양산부산지사(055-320-4818)를 통해 가능하다. 차진형 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